

# 완도 청산도 슬로길 스토리 입고 거듭났다

남도소릿길·사랑길·순례길... 7개 슬로길 이야기 입혀  
구들장은·탁족우물 등 주변경관 활용 관광상품도 개발

청산도는 '슬로시티'의 대명사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인증(2007년)에 구들장논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2013년) 등을 계기로 대표적 섬 관광지 됐다. 청산도 슬로길은 제주 올레길과 더불어 '국가대표급 걷기코스'로 자리매김했다.

완도군이 주변 마을 주민들의 삶과 전해 내려오는 설화, 풍경 등 역사·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해 7개의 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스토리를 입혔다. 섬의 정취, 사람 사는 이야기로 걷는 내내 심심할 틈이 없는 매혹적 이야기가 있어 누구나 걷고 싶은 명품 길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완도군은 여행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7개 슬로길에 이야기를 입히고 주변 자연자원을 관광자원으로 발굴, 여행객들의 발길을 불러모으는 구상이다.

◇남도소릿길 ~ 들국화길까지 = 청산도 슬로길에 입힌 스토리는 주변 풍광과 스토리를 보고 접하며 '느리게 걷고(緩步), 웃으며 걷다(莞步) 보면, 어느새 완보(完步)하게 되는 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초점을 맞췄다.

널리 알려진 스토리는 남도소릿길이라는 1코스(5.71km)다. 한국 영화 최초로 1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서편제'의 명장면,

주인공 세 사람이 진도아리랑을 부르며 구불구불한 돌담길을 걷는 장면이 촬영된 곳이라 서편제길로도 불린다.

2코스(2.1km)에는 사랑의 하트조형물에서 따온 듯 '사랑길'이라는 스토리가 입혀졌다. 청진산성을 지키는 무사와 기생이 사랑에 빠졌는데 월남의 분노를 피해 영원한 사랑을 택해 청산의 바다와 별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며 청산 바닷가 파도소리와 숲속 풍광을 느껴보라는 게 완도군 설명이다.

3코스(4.54km)에는 청산도 역사문화자원이 가장 많은 길로, 청산진성, 당리마을, 구들장논, 고인돌, 초분 등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길로, 고인돌길로 불린다. 완도군은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당리마을과 국내 하나 뿐인 물범프 등을 엮어 주민들의 삶을 풀어냈다.

4코스(1.8km)는 제주도 올레길 7코스와 비교할만한 '낭길'로 시간이 없더라도 안 걸으면 후회하는 길로 설명했다. 바다와 접한 절벽길이 주는 짜릿함과 해송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걷는 맛을 길에 입혔다.

5코스(5.54km)는 범바위를 활용, '호랑이조차 탐을 생명기운을 받는 생명바위길'로 소개했다. 산신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열가지(십장생)를 청산도로 불렀



는데 초대받지 않은 범이 왔다가 산신의 노여움을 받고 쫓겨나다 뒤쫓지 못하는 어린 범을 돌아보며 바위로 변했다는 설화를 길에 입혔다.

6코스(5.115km)는 척박한 땅을 논으로 일군 섬 주민들의 팍팍한 삶을 만날 수 있는 점을 감안, 순례길 스토리를 입혔고 7코스(6.21km)는 마을전체가 돌담으로 이뤄진 상서리·동촌리에서 따온 돌담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지리산 고사목을 떠올리는 목석 해송, 숨겨진 비경이라는 '새목아지'를 볼 수 있는 길로 소개하고 있다.

◇스토리에 관광자원을 결합하면 = 완도군은 7개 슬로길에 입힌 스토리와 연계한 주변경관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반 시설과 여행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걷기 여행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예를 들면 서편제의 원작인 이정준의 남도소리를 비롯, 탁족우물, 구들장논, 다랭이논, 고사목, 장기미 메꽃 절벽, 향도 바다새 바위, 읍리 물범프, 청산도당, 전복 땀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전 세계인이 찾는 명품 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슬로길의 매혹적 이야기와 관광자원을 발굴,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완도 청산도 슬로길 7코스 구간인 돌담길.



청산도 슬로길 6코스 구간인 구들장논. 팍팍한 섬 살이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완도서 가을 여행 즐기세요.  
완도군이 오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청산도를 비롯, 완도해변공원, 다도해일출공원 일대에서 '2017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을 연다.

군은 특히 비슷한 시기에 치러지는 다양한 축제들과 연계,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꾸민다는 구상이다.

## 청정 바다수도 완도서 가을 즐기세요

10월 27일 ~ 29일 '가을빛 여행' 행사

군은 다도해일출공원 국화 개화시기에 맞춰 행사 시기를 10월 말로 조정한다. 이어 완도타워에서 진행되는 '완도국화전시회', 완도수목원의 '가을숲음악회', 청산

도의 '가을향기축제' 등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다양한 볼거리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싱싱한 수산물을

직거래하는 장터가 마련되며 전복·광어 무료시식코너, 체험프로그램, 공연 등도 마련키로 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축제 대행사 선정을 거쳐 완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관광자원과 즐길거리로 구성된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 “국가균형발전 위해 ‘고향세’ 서둘러야”

진도군의회 도입 촉구

진도군의회가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진도군의회는 최근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고향세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진도군의회는 최근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고향세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진도군의회 경우 재정자립도가 12.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또 노인 인구가 32%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복지재원에 대한 부담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고향세 도입이 재정난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도군의회 관계자는 "고향세 제도는 지방재정의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지금이 적기"라며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의 세수증대는 물론 애항심 고취와 귀농귀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park@

## 진도 신비의 바닷길 일대 '마음길' 조성

200m 구간... 체험관·뽕할머니 조형물 설치 명소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주변에 진도아리랑과 '뽕할머니'를 활용한 벽천(壁泉)과 마음길(조감도)이 조성된다.

진도군은 고금면 금계리 신비의 바닷길 일대 200m 구간에 '마음길'을 조성, 벽천과 뽕할머니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고 바닷길을 배경으로 10개의 포토샷을 마련키로 했다. 마음길에는 진도할머니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그림엽서, 편지가 전시되고 가족과의 염원을 담은 15m 길이의 대형 소원의 벽이 설치된다.

가족들과 징·팽과리를 치며 단했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친해지라는 취지의 마음의 풍요 구간도 마련되고 야간 조명을 결합한 마음큐브 구간도 설치된다.

진도군은 "관광객들에게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알리는 한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park@

### 복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복구 삼각동 147-4, 11, 15번지 - 313평
- 209, 209-1번지 - 203평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총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평당 200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급 매”

### 리조트 콘도/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42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에’
-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
- 상담문의 H. 010-3605-5000

###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